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연구

박 경 수*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이주홍의 동시 세계 |
| II. 이주홍의 동시 찾기 | IV. 결론 |

I. 서론

최근 들어 향파(向破) 이주홍(李周洪: 1906~1987)의 문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의 문학이 갖는 값어치와 자리를 올바로 파악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룩했다. 특히 아동문학가로서, 그리고 소설가로서 이주홍이 갖는 면모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¹⁾ 등을 통해 한층 우뚝 선 자리에서 조명을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근래에 들어 이주홍의 아동문학에 관해서는 박태일이, 소설에 관해서는 류종렬이 집중 연구하고 있다. 이중 이주홍의 문학 작품들을 새롭게 발굴, 소개하면서, 그의 문학세계를 한층 폭넓게 보는 데 기여한 글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 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12.

류종렬, 「<결혼전날>에 대한 소고 -이주홍 문단 당선작의 의미」, 『오늘의 문예비평』 2003년 봄호, 2003. 3.

류종렬, 「이주홍의 미완의 장편소설 <야화>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3집, 한국문학학회, 2003. 4.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주홍의 문학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까닭은 2002년 5월에 '향파이주홍문학관'이 개관된 것을 계기로 그의 생전 장서가 연구자와 일반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신소년』, 『별나라』 등 많은 문학 관련 잡지, 그리고 원고 문치와 인쇄 자료로 남겨진 술한 작품들은 특히 이주홍 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디딤돌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이주홍의 문학, 좀더 넓게는 예술 전반에 관한 연구는 이제 비로소 제 방향을 잡고 출발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의 업적이 시, 동시, 동화, 아동극, 소설, 희곡, 문학론, 수필, 만화, 그림, 서화, 작곡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있으면서, 이들 각 분야의 성과가 자료를 뒤질수록 계속 새롭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문학과 예술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그의 업적을 꼼꼼하게 찾는 서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한 장르별 논의가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주홍의 문학업적 중에서 일제 강점기에 발표한 동시 작품을 가능한 대로 폭넓게 조사하여, 좀더 충실한 작품 서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당대 그의 동시가 어떤 작품세계의 특징을 보여주는가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²⁾를 통해 찾아진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작품 목록을 거듭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혹시 살피지 못했거나 실수로 빠뜨린 작품들을 찾는 작업부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14편의 동시 작품들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자료 조사를 확대하면 목록에

2) 이주홍의 시와 동시를 연구한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중에서 ③~⑤의 글이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시와 동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① 송명희, 「이주홍의 시적 지향과 정신적 높이」, 『나그네의 수첩』, 그루, 1990.

② 박용란, 「이주홍 동시 특성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③ 김지은, 「이주홍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7집, 경남지역문학회, 2001. 10. 31.

④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 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1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12.

⑤ 신현득, 「향파 이주홍의 동시 세계」, 『2003 이주홍문학제 이주홍문학세미나』, 이주홍문학재단, 2003. 5. 31.

드는 작품이 좀더 늘어날 것이지만, 일단 지금까지 이들 작품들의 발굴과 관련된 문학 서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이들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런데 이주홍의 동시 세계는 성인시의 사정과 함께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의 시 세계를 파악하는 데 동시와 성인시가 유사한 사정을 보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일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³⁾ 그렇지만 성인시의 사정을 고려하되 동시만을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이 논지를 분명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에서는 동시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II. 이주홍의 동시 찾기

1. 이미 찾아진 이주홍의 동시

이주홍은 사실 동화나 소설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주홍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동화나 소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가 시집 『풍경』(보리밭, 1984)과 동시집 『현이네 집』(보리밭, 1983)을 남기는 동시와 동시 분야에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그에게 시와 동시는 여기(餘技) 정도일 것이라 생각한 탓도 있으면서 동화와 소설의 풍성한 업적에 가린 탓에 오랫동안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일제 강점기에 발표한 시와 동시는 21세기를 맞고서야 비로소 조사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이주홍 자신에게 문제될 수 있는 저간의 사정이 작용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에 발표한 시와 동시의 대부분이 당시 계급의식에 입각한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인데, 그러한 문학적 경사를 남북분단의 상황과 자신의 문학관 변모 등을 고려할 때 굳이 소상하게 밝히고 싶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⁴⁾

3)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성인시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줄고,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시 연구」, 『우리말글』 제29집, 우리말글학회, 2003. 12에서 했다.

4) 이 점과 관련하여 이주홍이 남긴 다음 글을 고려해볼 만하다.

“잘못을 깨달아 행동에 옮겨 고치는 데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데 시인이 작고한 한 지 2003년 현재 15년이 지났다. 이제 그가 남긴 문학은 어떠한 것이었든 더 이상 가리거나 쉬쉬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⁵⁾ 그의 문학활동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하게 해석, 평가하기 위해서 그가 남긴 문학성과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개해야 한다. 더구나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 연구와 문학사 서술의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사회주의에 경도되면서 이루어졌던 이주홍의 문학은 어떤 선입관에 따라 배제하거나 폄하하려는 태도는 온당하지 못하며, 해당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개하는 동시에 학문적 논의의 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되고 엄정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먼저 김지은이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쓴 이주홍의 시를 폭넓게 찾는 일을 해서 시 17편(11편은 해방기 이후 작품임), 동시 9편을 목록에 추가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그의 시의 전반적 전개과정을 개관하면서 시 세계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⁶⁾ 그런데 충분한 서지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작품을 목록에 올리다 보니, 미처 찾지 못한 작품들도 많았고 다시 서지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작품들도 있었다.

이후 박태일은 이주홍의 초기 아동문학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일환으로, 당시 문학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아동잡지 『신소년』을 폭넓고도 꼼꼼하게 살피는 일을 했다.⁷⁾ 여기서 이주홍이 『신소년』에 발표했던 동시 작품들 중에 김지은이 찾지 못한 작품들을 상당수 추가로 밝혀내게 되었다. 그것들이 <별소제>, <벽> (이상 1932. 11), <염불기도>(1932. 12), <연>(1933. 5), <풀썩>(1933. 7), <자

나는 숨김없이 고백해서 지금의 이 순간에도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죽은 뒤에 발표할 遺稿라면 모르겠으나 現世에선 나의 부끄러운 결함이 남에게 주는 교훈이 되기보다 앞서서 우선 당장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과 내일의 생활에서 입어야 할 화살의 아픔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서다. 그만튼 이 참회기록도 깊은 상처는 감추어두는 채로 스쳐가게 될 것임을 먼저 용서바라고 싶다.” 이주홍, 「다시 난들 어찌리 -나의 懺悔錄」, 『격랑을 타고』, 삼성출판사, 1976. 7, 115쪽.

5) 최근 박태일이 이주홍이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을 관련 자료와 주변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박태일, 「이주홍론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소설시대』 제6호, 교수작가회의, 2003. 10.

6) 김지은, 앞의 글.

7) 박태일, 앞의 글.

리짜기>(1934. 7) 등 6편이다.

한편 신현득은 기존의 김지은, 박태일이 이룬 성과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소년』과 『별나라』를 조사해서 이주홍의 동시를 8편 찾아냈다.⁸⁾ 그러나 이중 『별나라』에 발표한 <엄마>(1934. 12)의 1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7편은 이미 조사해서 밝혀진 작품들이었다. 기존 연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글을 쓴 한계를 보여준 셈이다.

이상에서 김지은, 박태일, 신현득이 찾아낸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시와 동시 작품들은 모두 22편인데, 시가 7편, 동시가 15편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들은 이주홍의 본명으로 발표된 것이거나 ‘이향파(李香波 또는 李向破)’ ‘향파(香波 또는 向破)’란 필명으로 발표된 것들이다. 이주홍이 『신소년』에 작품을 본격 발표하기 시작했던 1930년 이전에는 대체로 ‘李香波’, ‘香波’의 필명을 주로 사용했으며, 그 이후에는 ‘李向破’, ‘向破’를 주로 썼던 것으로 나타난다.⁹⁾

그런데 필자의 확인 결과, 이주홍은 일시적이지만 ‘여인초(旅人草)’와 ‘방화산(芳華山)’이란 필명을 써서 여러 편의 동시 작품을 발표했다. 그리고 1931년 3월에 간행된 8인의 공동 동시집인 『불별』이 찾아짐으로써,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¹⁰⁾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충분히 조사되지 못했던 신문에서 이주홍의 동시 작품을 1편 더 확인할 수 있었다.

2. 새로 찾은 이주홍의 동시

(1) ‘여인초(旅人草)’와 ‘방화산(芳華山)’으로 발표된 작품

이주홍의 또 다른 필명으로 보이는 ‘여인초(旅人草)’의 경우를 보자.

‘여인초’가 이주홍의 필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음악과 시』 창간호

8) 신현득, 앞의 글.

9) 박태일은 이주홍이 망월암(望月庵)이란 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 바 있다. 이 필명이 구체적으로 쓰인 예를 밝히지 않아 아쉽다. 박태일, 앞의 글 『이주홍론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각주 3.

10) 『불별』의 서지와 성격, 그리고 동시 작품을 실은 8인의 시작품들에 관한 논의는 필자가 한 바 있다. 참고,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 -프로레타리아동요집 『불별』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8집, 경남지역문학회, 2003. 9.

(1930. 8)이다. 이 잡지에서 목차에는 ‘旅人草’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李周洪’으로 표시한 「음악운동(音樂運動)의 임무(任務)와 실제(實際)」가 있다. 여기서 ‘여인초’가 이주홍의 필명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으나, ‘여인초’가 이주홍과 다른 사람일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우선 『음악과 시』의 창간호를 통해 여인초를 이주홍의 필명으로 본 전례가 있다. 박태일이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을 살피는 가운데 『음악과 시』에 게재된 글을 각주에서 소개하면서 위의 「음악운동의 임무와 실제」를 바로 이주홍의 글로 나타낸 적이 있는데,¹¹⁾ 이후에 이주홍의 등단작 시비에 관하여 쓰면서 “이주홍이 쓰고 있는 여러 이름들, 곧 이주홍·향파·이향파·주홍·홍·여인초로 된 작품들은 1929년 이전에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탓이다.”¹²⁾라고 한 것을 보면, 여인초를 이주홍의 필명으로 보았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박태일은 여인초가 이주홍의 필명인 까닭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으며, 여인초로 발표된 다른 작품들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여인초가 이주홍의 필명인 점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시』의 편집과 제작의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음악과 시』는, 비록 창간호밖에 없지만, 경남 함안 출신인 양우정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낸 종합 문예지이면서, 당시 계급주의 문학의 판도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잡지이다. 그런데 이 잡지의 편집과 발행은 양우정과 이주홍의 공동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잡지에 글을 발표한 이는 모두 17명¹³⁾인데, 이 중에서 2편 이상 글이 올라 있으면서 글쓴이의 표시를 달리 하고 있는 이가 양우정과 이주홍이다. 여기서 필명과 본명으로 글쓴이를 달리 하면서 여러 편의 글을 올린 양우정과 이주홍을 이 잡지의 편집과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먼저 양우정은 필명과 본명 ‘양창준(梁昌俊)’으로 각각 동시(<알롱아

11)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제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6, 301쪽.

12) 박태일, 「이주홍의 등단작 시비에 관하여」, 『2003 이주홍 문학제 이주홍문학세미나』, 이주홍문학재단, 2003. 5. 31, 8쪽.

13) 『음악과 시』 창간호, 1930. 8의 필진은 양우정, 이주홍, 김병호, 엄홍섭, 신고송, 손풍산, 이구월, 박세영, 박아지, 권환, 김창술, 김해강, 이일성, 박철, 김광균, 허수만, 여항산인(餘航山人)으로 모두 17명이다.

달롱아>)와 민요론(「민요소고」)을 발표했으며, 「편음을 맞치고」를 썼다. 여기다 판권 부분에 편집 겸 발행인으로 양우정의 이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양우정이 이 잡지의 편집과 제작에 깊이 관여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이주홍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주홍은 이 잡지의 판권 부분에서 ‘인쇄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거기다 목차에서 표지와 컷을 그린 이를 ‘주홍’이라 표시했고, 동시 <편싸움노리>(요·곡)는 ‘李向破’, 시 <새벽>은 ‘李周洪’, 그리고 음악평론인 ‘음악운동의 임무와 실제’는 본문에서 이주홍, 목차에는 ‘旅人草’로 표시하면서 총 3편의 글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홍이 『음악과 시』에서 가장 많은 글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잡지의 편집과 발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주홍은 양우정과 함께 그들과 친분이 있는 문학인들의 글을 받아서 잡지를 편집하면서, 자신의 여러 글을 한 가지 이름으로만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필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인초’란 필명은 이주홍이 『신소년』의 편집 기술상 글쓴이를 다양하게 보이려고 한 의도에 따라 쓰여진 것으로 본다. 다음 글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혼자서 여러 다른 이름으로 작품을 메워 넣어야 하기도 했고 표지에서부터 삽화까지 혼자 도맡아서 하는 一人多役을 했다.¹⁴⁾

‘여인초’란 필명은, 위에서 보듯, 『신소년』을 편집하면서 “혼자서 여러 다른 이름으로 작품을 메워 넣어야” 했던 때에 쓰여진 여러 필명 중 한 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신소년』에서 ‘여인초’란 필명으로 된 작품을 찾아보면, 『음악과 시』보다 약간 앞선 시기부터 발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소년』에서 ‘여인초’란 필명으로 발표된 작품은 총 4편인데, <질날애비>(1930. 2), <봄날>(1930. 3), <서울 가는 나비>(1930. 4), <호박꽃>(1930. 7)으로 모두 동시 작품들이다. 이 밖에 여인초란 필명은 엄홍섭의 동시 <제비>(1930. 5)에 곡을 붙인 이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동시의 작곡을 주로 맡았던 이주홍이 여인초임을 알게 하는 한 증거가 된다.

14) 이주홍, 「맨발의 편집장」, 앞의 책, 『격랑을 타고』, 284-285쪽.

‘방화산(芳華山)’의 경우는 어떠한가? ‘방화산’으로 발표된 작품들도 『신소년』에서 ‘여인초’란 필명을 사용했던 시기와 같은 시기에 찾을 수 있다. 이들 작품 역시 현재까지 4편을 찾을 수 있었는데, <풀각시>(1930. 3), <잉크스병>(1930. 4), <수박>(1930. 7), <폭풍우>(1930. 8)로 모두 동시 작품들이다.

그런데 ‘방화산’이란 필명이 어떻게 이주홍의 필명임을 확정할 수 있는가? 이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김병호의 『최근동요평(最近童謠評)』에서 찾을 수 있다.

① 李周洪 君(發表名 芳華山)의 <수박> 대단히 조타. 意識을 가지고 있는 피오니—리는 自然의 現狀 우박 떨어지는 것만 보아도 부르조와에게 對한 戰鬪心이 촉발되는 것이다.¹⁵⁾

② 李周洪 君(發表名 芳華山)의 <폭풍우>는 썩 잘 되었다. 簡單한 몇 마디에서 더 만흔 效果를 얻보여 준다. 精進해주시기를 바란다.¹⁶⁾

위의 글을 쓴 김병호(金炳昊: 1906~1961)¹⁷⁾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진주 등지에서 교사로 지내면서 시와 동시를 주로 썼던 시인으로, 이주홍과는 동갑 내기로 사회주의 의식에 입각한 계급주의문학을 추구했던 사정 등에서 서로 친교가 깊었던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주홍이 『신소년』 편집을 담당할 당시에 거의 매호마다 동시나 과학 관계 글을 발표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김병호와 이주홍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글에서 김병호가 ‘방화산’이란 필명으로 발표된 동시를 평하면서 그 필명이 바로 이주홍임을 나타낸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방화산이 이주홍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명임을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소 먹이러 다니던 가까운 산은 東西로 나뉘어져 있는 芳華山과

15) 김병호, 『최근동요평(最近童謠評)』, 『중외일보』, 1930. 9. 26.

16) 김병호, 위의 글, 『중외일보』, 1926. 9. 28.

17) 김병호의 생애와 시 세계에 관해서 필자가 논의한 바 있다. 줄고,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 세계」, 『현대시학연구』 제8집, 현대시학회, 2003. 11.

梅南山이었다. 내 고향 땅인 합천읍에서 시오리 거리쯤 되는 산골 마을에 있는 크게 높지 않은 산들이이다.¹⁸⁾

위의 글에서 방화산은 이주홍의 고향인 합천읍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산으로, 이주홍이 유년시절 자주 소를 먹이러 다녔던 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방화산’이 이주홍의 필명임을 한층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여인초와 방화산이 이주홍의 또 다른 필명임을 밝혔다. 이로써 여인초로 발표된 4편, 방화산으로 발표된 4편이 이주홍의 동시 작품으로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그의 동시 세계를 좀더 폭넓게 살필 수 있게 되었다.

(2) 『불별』에 발표된 작품

『불별』은 ‘푸로레타리아童謠集’이라는 부제가 붙여진 채 1931년 3월 5일자로 신소년사 인쇄부(新少年社 印刷部)에서 인쇄하여 1931년 3월 10일자로 경성부(京城府) 경운동(慶雲洞) 96번지 소재 중앙인서관(中央印書館)에서 발행된 동시집이다. 속표지 다음에 당시 카프의 핵심 맹원들인 권환(權煥)과 윤기정(尹基鼎)의 서문을 붙여서 카프(KAPF)의 핵심부로부터 지지 내지 후원을 받고 이 동시집이 간행되었음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 동시집은 카프의 공식 출판물은 아니지만, 카프 조직에서 발행된 것이나 다름없는 최초의 프롤레타리아동시집에 해당된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8명의 시인들 중 이주홍은 모두 6편의 동시 작품을 『불별』에 올리고 있다. 7편의 동시 작품을 올린 이구월(李久月: 1904~?) 다음으로 양우정과 함께 많은 작품을 게재한 시인이다. 작품의 게재 편수가 시인의 위상을 바로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동시 작품을 그만큼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18) 이주홍, 「산에의 향수」, 앞의 책, 『격랑을 타고』, 53쪽.

순서	시인명	작품명	작품수
1	彈 金炳昊	가을바람(畫), 退學(曲), 모숨기, 바다의 아버지, 더운 날	5
2	雨庭 梁昌俊	따로 있다(畫), 망아지(曲), 대목장 압날 밤, 비밀 상자, 씨름, 새총	6
3	久月 李錫鳳	계떼(畫), 새 쫓는 노래(曲), 소작료, 어디 보자, 조심하십시오, 중놈, 자동차 소리	7
4	向破 李周洪	벌꿀(畫), 편싸흙 노래(曲), 모기, 장아치 아저씨, 방귀, 박쥐·고양이	6
5	血海 朴世永	길(畫), 대장간(曲), 손님의 말, 단풍, 할아버지 현時計	5
6	楓山 孫在奉	낫(畫), 거머리(曲), 물총, 불칼, 물뱀이	5
7	孤松 申末贊	우는 꿀 보기 실패(畫), 미력과 장승(曲), 껌질 먹는 신세, 기다림, 도야지	5
8	響 嚴興燮	어머니(畫), 인쇄괴계(曲), 夜學 노래, 제사	4
소계	8명		43

그런데 『불별』에 실린 이주홍의 동시 작품들은 다른 시인들의 동시 작품들과 약간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다른 시인들의 경우, 『불별』에 실린 동시 작품들의 대부분이 이미 다른 지면에 발표된 것들인데 비하여, 이주홍의 경우는 『음악과 시』 창간호(1930. 8)에 발표된 <편싸흙노리> 이외에는 모두 새로운 작품들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주홍의 다음 글을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냥 지내버릴 수 없는 것은 아즉 檢閱局에 드러잇슬 新興童謠八人集 『불별』에는 이 해의 作으로 誌上에 發表처 안흔 것이 만히 잇스니 이것은 三〇年의 큰 文獻的 業績이라 아니 할 수 업다.¹⁹⁾

『불별』이 간행된 때보다 1개월 앞서 발표한 글이다. 우선 『불별』이 1931년 2월 당시 검열 과정에 있다는 점, 그리고 『불별』에 수록된 작품들이 대부분

19) 이주홍, 「아동문학운동 1년간(2)」, 『조선일보』, 1930. 2. 14.

1930년에 쓰여진 작품들이면서 “지상에 발표치 안흔 것이 만히 잇”다고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주홍이 『불벌』의 편집과 발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벌』이 인쇄된 곳이 다름아닌 신소년사 인쇄부였으며, 저작 겸 발행인이 『신소년』의 저작 겸 발행인과 동일한申明均(申明均)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더하여 이주홍이 당시 『신소년』의 편집일을 보고 있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넉넉히 헤아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다른 시인들이 『불벌』에 발표한 작품들은 대부분 이 동시집이 간행되기 이전에 『신소년』, 『별나라』 등의 지면에 이미 발표한 작품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신선감이 떨어지지만, 이주홍의 경우는 6편 중 5편이 현재까지 다른 지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작품들로 확인되어서 주목된다. 이들 작품들이 바로 <별꽃>, <모괴>, <장아치 아저씨>, <방귀>, <박쥐 · 고양이> 등이다.

이들 5편의 작품들을 앞서 언급한 ‘여인초’와 ‘방화산’으로 발표한 작품 8편에 더하면 모두 13편이 되며, 기존에 조사된 14편에 더하면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는 모두 27편으로 늘어난다.

(3) 신문에 발표된 작품

이주홍은 잡지 『신소년』의 편집 일을 보기 이전에 신문지상에 작품을 투고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일개 두메산골인 <배암골>의 草野에 묻혀 手工業의인 私製 잡지 『新少年』을 만들고 있었던 僭稱 無名 編輯者가 일약 대도시 서울에서 발행하는 大企業의 진짜 『新少年』의 편집자로 등단을 했으니 말이다.

이에 앞서 詩作品도 朝鮮日報 같은 대신문에 투고했더니 面마다 친절히 게재해 주고는 했다.²⁰⁾

위에서 이주홍은 『신소년』의 편집 일을 보기 이전에 시작품을 “조선일보 같은 대신문에 투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소년』의 편집 일을 보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1929년 말 이전에 조선일보의 문예란을 아무리 살펴도 이주홍의 시 작품을 작품을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당시를 회고하

20) 이주홍, 『촌뜨기 상경기』, 앞의 책, 282쪽.

는 글이다 보니, 시작품을 발표한 신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이주홍의 시작품은 『중외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홍의 시 또는 동시는 『중외일보』나 『동아일보』 지상에 드문드문 발표되었다. 현재까지 『중외일보』에서 시 <살구꽃>(1928. 4. 8)이 찾아졌고, 『동아일보』에서 동시 <빨간부채>(1929. 7. 7), 시 <舊曆 설날>(1930. 2. 4), 동시 <뽕>(1936. 3. 1)이 조사되었다.²¹⁾ 여기에 당시 신문을 좀더 자세히 보면, 『중외일보』에서 시 <고향의 동무들이여>(1928. 3. 30), 『동아일보』에서 동시 <너름밤>(1929. 7. 8)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로써 『중외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각각 이주홍의 시와 동시를 1편씩 더 찾은 셈인데, 이들 작품들은 지금까지 이주홍의 첫 활자화된 작품이면서 문단 데뷔작으로 알려진 동화 <배암색기의 무도(舞蹈)>(『신소년』 1928년 5월호)보다 먼저 활자화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런데 이상의 시와 동시 작품들은 문단 데뷔작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으나, 이주홍의 시 습작 과정뿐만 아니라 문단에 등장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항만은 아니다. 물론 1930년 이전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이주홍의 시나 동시 작품들은 독자 투고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기성 문인의 대우를 받으며 발표된 작품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작품의 발굴을 통해 이주홍이 문학활동의 초기에 시와 동시 창작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1) 김지은, 앞의 글, 109-200쪽의 작품목록에 이들 작품이 들어 있다.

Ⅲ. 이주홍의 동시 세계

1. 아동 생활과 자연 대상의 동심 표현

일제 강점기에 발표한 이주홍의 동시는 현재까지 29편의 목록을 얻을 수 있는데, 가장 빠른 작품이 『동아일보』지상에 1929년 7월 7일자로 투고하여 발표된 <빨간부채>이고, 가장 늦은 작품이 역시 같은 신문에 1936년 3월 1일자로 발표한 <뽕>이다. 이렇게 보면 그의 동시는 채 6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작품들은 1930년 중반을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전기 동시와 후기 동시의 변별은 계급적 관점의 사회주의 의식이 드러나지 않느냐 드러나느냐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²²⁾

그러면 전기 동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지 검토해 보자. 우선 여기에 드는 작품들은 『동아일보』에 독자 투고한 <빨간부채>, <너름밤> (1929. 7. 8)과 『신소년』에 ‘여인초(旅人草)’와 ‘방화산(芳華山)’의 필명으로 발표한 <질날애비>(1930. 2), <봄날>(1930. 3), <서울 가는 나비>(1930. 4), <호박꽃>(1930. 7), <풀가지>(1930. 3), <잉크스병>(1930. 4) 등이다.

一. 부채부채 빨간부채

죽으마케 예쁜부채
우로래비 공부할재
서울가서 사왔다네

二. 앵도가튼 빨간부채

조개가튼 예쁜부채
사다준정 고마워서
자나깨나 쥐고있네

- <빨간부채> 전문²³⁾

동요나 민요로 불리는 <부채노래>는 비싼 돈이나 물건을 주고 샀더니 여름

22)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마지막 동시 <뽕>은 시기상의 구분에서 후기 동시에 속하지만, 사회주의 의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기 동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작품이다.

23) 『동아일보』, 1929. 7. 7.

이 빨리 지나버려서 허망하다고 푸념하는 노래이거나 부채를 사라고 부채 자랑을 하는 노래이다. 이 동시도 이러한 동요나 민요에 깃들인 생각을 살려서 쓴 동요시 작품이다. 제1연에서 오빠가 사준 예쁜 부채를 자랑하는 표현을 하고, 제2연에서는 부채를 사준 오빠의 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시상의 전개는 자연스럽고, 노래로 불릴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다 하겠으나, 각 연을 4·4조 2음보 4행씩 짝을 맞춘 율격이 아직 동시를 지나치게 규범적으로 생각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 ① 질날애비 아가씨는 엠븐아가씨
 질죽질죽 질죽질죽 팔을버리고
 우리동생 춤잘추는 흥내넌다네

제가무슨 춤을추나 질날애비가
 눈도코도 업는것이 무슨춤을춰
 춤잘추는 우리동생 심술부리네
 - 「질날래비」에서²⁴⁾

- ② 가시꽃핀 덩불미치 놀기좃타네
 가시꽃핀 덩불미치 놀기좃타네
 빨간잔디 쓰러모아 잘리팔고서
 비당캐를 쓰드서 각시맨드세

황토흙을 써어서 썩을맨들고
 나시랭이 뛰어서 적을맨들고
 수숫대기 가마에나 각시실고서
 오날은 풀각시가 시잡간다오
 - <풀각시>에서²⁵⁾

①은 ‘여인초’로 발표된 작품이다. 제목으로 삼은 ‘질날래비’는 잠자리를 말하는 경상도 방언이다. 동요로 불리는 <잠자리 노래>는 대체로 잠자리를 잡기 위해 잠자리를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놀리는 사설을 짙막하게 부르는 것이다. 이 동시는 이런 전승동요에서 그 풍소적(諷笑的) 성격을 살리되 ‘질날래비’

24) 『신소년』 제8권 제2호, 1930. 2.

25) 『신소년』 제8권 제3호, 1930. 3.

의 방언을 의태어로 살려 쓰면서, 잡자리의 멋진 춤과 이를 흉내내는 동생을 대조시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눈도코도 업는것이 무슨춤을춰/춤잘추는 우리동생 심술부리네”와 같은 표현은 사물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동심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역시 4·4·5조로 음절수의 정형을 지킨 울격이 동시의 생동감을 저해하는 구실을 한다.

다음 ‘방화산’으로 발표된 동시 ②는 풀을 뜯어 각시 인형을 만들어 소꿉장난을 하는 풀각시놀이를 소재로 했다. 특히 ②는 실제 풀각시놀이에서 불려졌던 전승동요²⁶⁾와 비교할 때, 전승동요의 자연스러운 시상을 잘 살리고 있는 패러디시라고 할 수 있다. 전승동요에서도 풀, 꽃, 흙 등을 이용하여 풀각시를 만들어 시집보내는 소꿉장난을 하는 과정을 노래하는데, 이 동시는 이러한 동요의 시상 전개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울격은 음절수의 정형을 지키는 규범성에서 다소 벗어남으로써 한층 생동감을 얻고 있다.

1

호출속출 썩거설랑 두손에취고
나물나물 캐여설랑 머리에이고
앗실뻔실 뽀손노코 도라가면은
마을사람 엠브다고 칭찬한다오

2

호튼호튼 역거설랑 요를만들고
나물나물 찌어설랑 죽을쑤어서
병드러신 어머님의 공양하면은
우리쌀이 효자라고 칭찬한다오

- <봄날> 전문²⁷⁾

위 <봄날>은 산에 나물을 캐러 가서 부르는 <고사리 노래>와 비교되는 동

26) 임동권 편,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66, 494쪽에 경남 고성에서 채록된 <각씨 놀이요>는 다음과 같다. “앞산에는 빨간꽃요/뒷산에는 노랑꽃요/빨간꽃은 초마 짓고/노랑꽃은 저고리짓고/풀썩거 머리허고/그이떡지 술을거려/흙가루로 밥을 짓고/술있을낭 국수지어/풀각시를 절시키네/풀각시가 절을하면/망근을쓴 신랑 올랑/꼭지꼭지 혼들면서/밤꽃것에 물마시네.”

27) 『신소년』 제8권 제3호, 1930. 3.

요시 작품이다. <고사리 노래>는 부드럽고 단 고사리를 꺾어 와서 맑은 물에 헝구고 잘 데쳐내어 남군과 함께 맛있게 먹자는 사설을 부른다. 그런데 이 <봄날>의 제1연에서는 나물을 캐는 어린 처자의 맵시를 자랑한 다음, 제2연에서는 '남군'이 아닌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어린 처자를 시의 화자로 삼고, 산에서 캔 나물을 맛있게 조리한다는 시상은 전승동요의 경우와 닮아 있으나, 남녀의 관계를 모자의 관계로 전환시키면서 부모에 대한 효심을 나타내는 교훈적인 노래로 탈바꿈을 시켰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주홍의 초기 동시는 대체로 아이들의 전승동요를 바탕으로 창작한 동요시의 성격을 지니며, 아이들의 실제 생활과 밀착된 동심의 세계를 주로 노래하는 작품들이었다. 그리고 시의 형태 면에서 아직 동요 리듬의 생동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규범적 율격의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주홍의 초기 동시는 아직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문학이념에 감염되기 이전에 쓴 작품들로, 자연과 벗삼아 놀았던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포착하여 그에 호소하는 작품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계급적 세계인식과 사회현실의 풍자

1930년 중반 이후에 발표한 이주홍의 동시는 그 전의 동시와는 상당히 다른 시 세계를 보여준다. 이주홍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체류 기간을 통해 사회주의 문학을 접했을 개연성이 많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귀국 후 『신소년』, 『음악과 시』 등의 편집을 맡으면서 당시 카프 소속 문학인들과 교류하는 동안 사회주의 문학에 한층 밀착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어떻든 1930년 중반 이후에 쓰여진 이주홍의 후기 동시는 계급적 세계인식

28) 류종렬은 「이주홍의 카프문학 연구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4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3. 9에서 이주홍이 사회주의 문학으로 나아가는데 일본 체류 시 전목남랑(楳木南郎)과의 만남과 그로부터의 영향 관계를 주목한 바 있다. 앞으로 이 점을 좀더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전목남랑의 소개로 일본 잡지에 발표했다는 이주홍의 동시와 만화 등을 찾아서, 발표 잡지와 작품의 성격을 파악하고, 두 사람의 문학관을 좀더 폭넓게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을 바탕으로 당대의 사회현실을 풍자하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여기에 ‘방화산’이란 필명으로 『신소년』에 발표한 <수박>(1930. 7), <폭풍우>(1930. 8)와 『불별』에 수록된 6편의 동시 작품들, 그리고 1930년대 중반까지 『신소년』과 『별나라』에 발표한 12편의 동시 작품들이 속한다. 이들 작품들이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만큼 그 당시의 동시를 대표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방화산’으로 발표된 <수박>과 <폭풍우>는 사실 계급적 관점의 세계인식이 매우 얹게 나타난다. <수박>에서는 우박이 자기네 밭 수박에는 내리지 말고 ‘뒷골샌님’의 밭에 있는 수박에만 내려달라고 하면서, “뽕뽕들 이마뽕이/동-동- 찌서가네”라고 하며 ‘뒷골샌님’의 우박이 깨어져 떠내려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폭풍우>에서도 인력거를 타고 가던 양복장이 ‘영감’이 폭풍우에 우산이 뒤집히고 인력거가 넘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비를 맞은 귀처럼 모습이 망가졌다고 풍자를 했다. 이들 작품에서 ‘뒷골샌님’과 양복장이 ‘영감’을 부르주아 계급의 전형으로 삼아서 풍자하고 있으나,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상대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계급적 적개심을 나타내거나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쪽이 아니다.

그러나 『불별』에 발표된 동시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편싸움노리>와 <별꽃>을 보자.

① 굶은애도 나오라
버슨애도 나오라
한테영켜 가지고
편쌈하러 나가자

짚널대로 짚엳다
밭힐대로 밭혔다
장그럴줄 알어도
인제인제 못참네

- <편싸움노리>에서²⁹⁾

29) 『음악과 시』 창간호, 1930. 8. 『불별』, 중앙인서관, 1931. 3. 10, 15쪽에 재수록. 이하 각주에서 『불별』에 게재된 작품을 인용할 경우는 책명과 페이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벌들이 동무야 이어나라
 꿀고방에 벌놈이 또드러왔다
 놀고서 먹는놈 미운놈이다
 침주자! 침주자! 침주자!

우리땀 우리피 모워둔걸
 네놈이 엇갸다 먹으려드니
 놀고서 먹는놈 미운놈이다
 쏘아라! 쏘아라! 쏘아라!

언제나 그러케 질줄아나
 왕벌떼 침맛을 보고가게
 놀고서 먹는놈 미운놈이다
 엉겨라! 엉겨라! 엉겨라!
 - <벌꿀> 전문³⁰⁾

위의 두 작품은 계급적 대립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①에서는 ‘굶은 애’, ‘벗은 애’와 이들과 편싸움을 하는 상대의 대립이, ②에서는 벌들과 ‘벌놈’의 대립이 그것이다. 그리고 각 시에서 전자는 굶고 벗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피땀 흘리며 노동한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신하고, 후자는 이들과 처지가 상반되는 “놀고서 먹는 놈”들로 표현된 부르주아 계급을 나타낸다. 이들 작품은 바로 이러한 계급적 대립과 모순을 바탕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집단적 투쟁을 그리려고 했다. 그것이 ①에서는 편싸움의 형태로, ②에서는 벌떼의 집단 공격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특히 ②에서는 집단투쟁의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침주자!”, “쏘아라!”, “엉겨라!”와 같이 공격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어휘를 의도적으로 큰 글자로 썼다.

그런데 이주홍의 동시 작품들은 계급적 모순과 대립을 기본적인 구도로 삼으면서도, 선승동요의 형식과 수사법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특히 풍자와 해학의 수사적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적 성취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점이 당대 다른 시인들의 동시와 차별화되는 이주홍 동시의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몇 작품을 더 보자.

30) 『불벌』, 5쪽.

- ① 모기 앵앵앵
 물고 앵앵앵
 빨고 앵앵앵
 조코 앵앵앵

모기 앵앵앵
 맛고 앵앵앵
 떨고 앵앵앵
 죽고 앵앵앵

- <모기> 전문³¹⁾

- ② 통삼베 중우에 방귀가 뽕
 네놈들 못먹던 보리방귀다
 고기만 쳐먹든 가즌코끄테
 우리네 냄새도 마터보아라.

일하다 쉬다가 방귀가 뽕
 아춤에 보리밥 다삭나보다
 약한놈 ×땀만 땀아서갈네
 맛조흔 방귀로 아서가거라.

- <방귀> 전문³²⁾

동시 ①에서 모기 소리를 반복적인 여음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나, 1연과 2연을 병치(parallelism)시켜 의미상의 대조를 이루게 하는 기법은 전승동요에서 볼 수 있는 기법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 시는 간명한 어휘와 수사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단순한 사고에도 잘 호소되는 성질을 지닌다. 이 동시는 또한 단순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겉으로는 모기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 풍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모기에 상응하는 착취계급을 풍자하는 알레고리(allegory)의 시이면서 아이러니(irony)의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1, 2연의 대조에서 모기가 ‘물고/빨고/조코’의 상황이 결국은 ‘맛고/떨고/죽고’의 상황으로 역전되는 아이러니를 통해 착취계급에 대한 효과적인 풍자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 ②는 해학적 소재와 표현을 통해 풍자적 효과를 추구한 작품이다. 우선

31) 『불벌』, 38쪽.

32) 『불벌』, 40쪽.

시적 소재부터가 '방귀'라 하여 관심을 끌게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민요나 동요에서 불리는 <방귀 노래>나 <방귀 꺾는 아이 놀리는 노래>는 모두 諷笑遊戯謠로 한결같이 웃음을 동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②의 동시도 각 연의 1행에서 “통삼배 중우에 방귀가 뽕”, “일하다 쉬다가 방귀가 뽕”이라 하여 처음부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웃음은 연속되는 행의 사실로 넘어가면서 점차 의미심장함으로 새겨지게 된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목소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주홍 동시는 이처럼 효과적인 풍자와 해학의 기법을 통해 동심에 잘 호소될 수 있는 시적 발생과 수사를 확보하고 있다. 다음의 <가나다 노래>나 <천자(千字)푸리>도 언어유희를 통한 풍자적 효과를 잘 살린 작품들이다.

- ① 가난하다고 가ㅅ자
 나락심은다고 나ㅅ자
 다뻘얏긴다고 다ㅅ자
 라팔불고모힌다고 라ㅅ자
 마치를올너맨다고 마ㅅ자
 바수어ㅅ대린다고 바ㅅ자
 …(중 략)…
 파업단이악였다고 파ㅅ자
 하하하웃는다고 하ㅅ자
 - <가나다 노래>에서³³⁾

- ② 한울千 짜-지(地)
 일하는 사람만 살-거(居)
 놓고먹는 부자부(富)
 지구밖그로 찰 축(蹴)
 - <천자(千字)푸리> 전문³⁴⁾

동요로 불리는 <한글풀이 노래>는 ‘가가거거…’로 이어지는 한글의 순서에 짝을 맞추어 한글을 외기 쉽도록 한 노래이며, <천자풀이 노래>는 과거 서당

33) 『별나라』 통권 50호, 1931. 5.

34) 『별나라』 통권 53호, 1931. 9.

아이를 놀리며 부르던 노래였는데 천자문을 해학적으로 풀어서 부르는 짧은 동요이다. 이들 동요는 민요의 유희요 중에서도 言語遊戲謠에 해당하는데, 노래의 사실 자체를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을 지닌다.³⁵⁾ 위의 두 동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동요 <한글풀이 노래>와 <천자풀이 노래>와 각각 상호텍스트의 관계를 지니는 작품이다.

먼저 ①은 ‘가’부터 ‘하’까지 한글 가나다라의 첫 글자를 순서대로 잡아서 사설을 붙이고 그 끝에 다시 가나다라의 글자로 맺으면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한 동시이다. 기본적으로 동요 <한글풀이 노래>와 같이 사설을 연이어 붙이는 방식은 유사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사설을 통해 환기하는 의미에 있다. 동요로 부르는 사설은 아이들의 일상을 소재로 엮어서 흥미롭게 부르는데, 이 시에서는 농민들이 지주의 착취에 항거하여 소작쟁의를 일으키고 결국은 성공하여 웃음을 웃게 된다는 내용의 사설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작품의 제목 아래에 “동생들이 언문 배울 때 이러케 기억하도록”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서, 이 작품의 작시 목적이 계급투쟁의 의식 고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의 시도 동요로 불리는 <천자풀이 노래>의 사실 구성 방식을 잘 활용해서 지은 작품이다. 그렇지만 일 하는 사람만 살고, 놀고먹는 부자들은 지구 밖으로 몰아내자고 하는 사설을 재치 있게 짜 넣어서 계급투쟁의 의미가 노래로 부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했다. 이들 언어유희의 동요시를 통해 시인의 시적 재능이 남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언어유희의 동요시 이외에도 언어를 재치 있게 활용하는 숨씨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다. 다음 작품들을 보자.

- ① 산꼴중놈 목탁은
 밤낮업시 토—그탁
 말도못하는 부처한테
 잘되게 해달라고 염불염불
 부처가 움죽이나
 손바닥이 부르키나
 오늘도 흠뻑

35) 박경수, 「한국 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6, 133-135쪽.

해가 빠졌다
 어리바리 예수꾼
 자나새나 아—멘
 눈도엿는 하늘한테
 구원해달나고 기도기도
 하늘이 말을하나
 목구렁이 쇠여빠지나
 말나부튼 배창자가
 꼬로록

- <염불기도> 전문³⁶⁾

② 오로치고 꿈 박
 외로치고 꿈 박
 바딕치는 아버지
 목아지가 꿈 박
 어서짜야 빛을갓지
 화가난다 쿵닥쿵

- <자리짜기>중에서³⁷⁾

위에서 ①은 중이 아무리 염불을 해도, 교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궁핍을 면할 수 없다는 현실풍자의 시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풍자는 “톡-그탁”, “홀닥”, “꼬로록”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뿐만 아니라 “염불염불”, “기도기도”와 같이 일반명사를 반복 사용하여 의성어나 의태어처럼 활용함으로써 시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점은 ②에서도 “꿈 박”, “쿵닥쿵”과 같은 어휘의 활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어휘가 베를에 바디로 베를 짜면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기도 하지만, 밤을 ‘꼬박’ 세우다시피 베를 자야 하는 아버지의 처지와 그렇게 일을 해도 빛을 갓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언어적 활용의 특징은 광복기 이후의 동시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미 연구된 바와 같이, 이주홍의 동시는 의성어 즉 소리상징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시적 효과를 거두고, 토속어의 활용을 통해 신선함과 리듬감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

36) 『신소년』 제10권 제11호, 1932. 12.

37) 『신소년』 제12권 제3호, 1934. 3.

졌다.³⁸⁾ 이런 점이 일제 강점기의 동시에서는 계급적 세계인식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면서도, 시의 정서적 효과를 묘미 있게 창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해당 작품들이 선전·선동에 의한 관념적인 시로 떨어지지 않고 수준 있는 작품으로 시적 성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IV. 결론

이 글은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에 이주홍이 발표한 동시를 가능한 폭넓은 자료 조사를 통해 찾아서 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동시가 보여주는 시 세계의 특징을 고찰했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 강점기에 발표한 이주홍의 동시 작품을 조사한 결과, 이미 서지 사항이 분명히 확인된 15편 외에 14편의 작품을 새롭게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새로 찾아진 이주홍의 동시는 ‘여인초(旅人草)’란 필명으로 발표된 작품 4편, ‘방화산(芳華山)’이란 필명으로 발표된 작품 4편, 8인의 프롤레타리아동요집으로 발간된 『불별』에 게재된 작품 5편, 그리고 『동아일보』에 발표된 1편이었다.

셋째, 이주홍의 동시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첫째 시기의 동시는, 그의 성인시의 경우와 같이, 1930년 중반 이전에 쓰여진 작품들로 실제 이들의 생활과 밀착된 동심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둘째 시기의 동시는 1930년대 전반기의 작품들로 사회주의 의식에 토대를 둔 계급적 현실인식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동시가 이주홍 동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시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전승동요의 사상과 수사법을 잘 활용하여 계급 모

38) 곽홍란, 앞의 글, 「이주홍 동시 특성 연구」. 필자가 참고한 글은 이주홍아동문학상운영위원회 편, 『이주홍 문학연구 -학위논문 모음』, 도서출판 대산, 2000. 11.에 재수록된 글이다.

순의 현실을 풍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있었던 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주홍의 동시 연구는 앞으로 광복기 이후의 작품들을 포함하여 한층 포괄적인 시야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복기 동시에 관한 자료 조사 작업이 치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와 함께 병행된 동화, 비평론 등의 아동문학, 그리고 시와 소설 등의 장르에 관해서도 전체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주제어: 이주홍, 동시, 동요시, 아동문학, 계급문학, 현대문학, 『불벌』, 사회주의 문학.

<별첨>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목록

1. <빨간부채>, 『동아일보』, 1929. 7. 7
2. <너름밤>, 『동아일보』, 1929. 7. 8
3. (旅人草) <질날애비>, 『신소년』, 1930. 2 ⑦
4. (旅人草) <봄날>, 『신소년』, 1930. 3 ⑦
5. (芳華山) <풀각시>, 『신소년』, 1930. 3 ⑦
6. (旅人草) <서울 가는 나뭇>, 『신소년』, 1930. 4 ⑦
7. (芳華山) <잉크사병>, 『신소년』, 1930. 4 ⑦*소년소녀신춘동요집(별책) *원
문미확인
8. (旅人草) <호박꽃>, 『신소년』, 1930. 7 ⑦
9. (芳華山) <수박>, 『신소년』, 1930. 7 ⑦
10. (芳華山) <폭풍우>, 『신소년』, 1930. 8 ⑦
11. <별꽃>, 『불별』, 중앙인서관, 1931. 3. 10
12. <편싸흙노리>, 『음악과 시』 창간호, 1930. 8. 15
『불별』, 중앙인서관, 1931. 3. 10
13. <모기>, 『불별』, 중앙인서관, 1931. 3. 10
14. <장아치 아저씨>, 『불별』, 중앙인서관, 1931. 3. 10
15. <방귀>, 『불별』, 중앙인서관, 1931. 3. 10
16. <박쥐 · 고양이>, 『불별』, 중앙인서관, 1931. 3. 10
17. <가나다노래>, 『별나라』, 1931. 5
18. <千字푸리>, 『별나라』, 1931. 9
19. <별소제>, 『신소년』, 1932. 11
20. <벽>, 『신소년』, 1932. 11
21. <염불기도>, 『신소년』, 1932. 12
22. <개똥>, 『별나라』, 1933. 2
23. <호작질>, 『별나라』 통권 67호, 1933. 5

26. 한국문학논총 제35집(2003. 12)

24. <연>, 『신소년』, 1933. 5

25. <풀썩>, 『신소년』, 1933. 7

26. <機關車>, 『별나라』 통권 73호, 1933. 12

27. <자리짜기>, 『신소년』, 1934. 3

28. <엄마>, 『별나라』 통권 79호, 1934. 12. 15

29. <꿩>, 『동아일보』, 1936. 3. 1

* 이상 2~11, 13~16번의 작품이 필자가 새로 찾아낸 이주홍의 동시임.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신소년』, 『별나라』, 『음악과 시』, 『아등』, 『우리들』, 『대중공론』, 『시학』, 『비판』, 『풍립』, 『동양지광』,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

大村益夫·布袋敏博 편, 『근대조선문학일본어작품집(1939~1945)』 창작편 6,

동경: 녹음서방, 2001. 12.

大村益夫·布袋敏博 편, 『조선문학관계일본어문헌목록 -1882. 4~1945. 8-』, 동

경: 대촌연구실, 1997. 1.

이주홍, 『풍경』, 보리밭, 1984.

이주홍, 『현이네 집』, 보리밭, 1983.

임동권 편, 『한국민요집』 I ~ VI, 집문당, 1966~1981.

2. 참고논저

곽홍란, 「이주홍 동시 특성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병호, 「最近童謠評」, 『중외일보』, 1930. 9. 26.

김지은, 「이주홍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7집, 경남지역문학회, 2001. 10. 31, 83-113쪽.

류종렬, 「〈결혼전날〉에 대한 소고 -이주홍 문단 당선작의 의미」, 『오늘의 문예비평』 2003년 봄호, 2003. 3

류종렬, 「이주홍 초기 소설의 작품세계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12, 183-203쪽.

류종렬, 「이주홍의 미완의 장편소설 <야화>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3집, 한국문학회, 2003. 4, 117-146쪽.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 -프로레타리아동요집 『불별』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8집, 경남지역문학회, 2003. 10, 201-232쪽.

박경수,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 세계」, 『현대시학연구』 제8집, 현대시학회, 2003. 11.

- 박경수,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6, 133-135쪽.
- 박태일,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 『한국문학논총』 제30집, 한국문학회, 2002. 6.
-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제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6, 291-327쪽.
- 박태일, 「이주홍론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소설시대』 제6호, 교수작가회의, 2003. 10, 총 30쪽.
- 박태일, 「이주홍의 등단작 시비에 관하여」, 『2003 이주홍 문학제 이주홍문학세미나』, 이주홍문학재단, 2003. 5. 31, 1-13쪽.
-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 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12, 147-173쪽.
- 송명희, 「이주홍의 시적 지향과 정신적 높이」, 『나그네의 수첩』, 부산: 그루, 1990, 총 15쪽.
- 신현득, 「향파 이주홍의 동시 세계」, 『2003 이주홍문학제 이주홍문학세미나』, 이주홍문학재단, 2003. 5. 3), 1-12쪽.
- 이주홍, 「아동문학운동 일년간(2)」, 『조선일보』, 1930. 2. 14.
- 이주홍, 『격랑을 타고』, 삼성출판사, 1976. 7, 53, 115, 282-285쪽.
- 이주홍문학재단 편, 『2002 이주홍 문학제 -기념작품집』, 부산: 도서출판 아침, 2002. 12.
- 이주홍 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편, 『이주홍 문학연구』 제1~2권, 부산: 도서출판 대산, 2000. 11, 137-151쪽(제1권), 242-328쪽(제2권).
- 이주홍 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편, 『이주홍 문학과 인생』, 부산: 도서출판 세한, 2001. 5, 58-67쪽.

<Abstract>

A Study on Children's Verse of Lee, Ju-Hong in the Colonial Period

Park, Kyung-Su

This paper aims to find out children's verses of Lee, Ju-Hong with investigating journals and newspapers in the colonial period, and prove characteristics of the world of his verses. the results so far achieved is as follows.

1. As the results I investigated children's verses of Lee, Ju-Hong, I could find out fourteen works newly except fifteen works well known to us.

2. Fourteen works investigated newly are four pieces under the pen name of Yeo In Cho(旅人草), four pieces under the pen name of Bang Wha San(芳華山), five pieces published in 『Bul Beul』(i. e. the burning stars), and one piece published in Donga Ilbo.

3. I could divide his children's verses into two parts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early in 1930. One part is woks that express the mind of child connecting with the actual life of children, another part is the proletarian children's verse that exposes the proletarian consciousness satirizing the world of class contradiction based on socialism. Especially the latter shows his poetic identity that distinguishes from other poets making good use of the thought expressed in traditional children's songs and the rhetoric of it.

Key Words: Lee, Ju-Hong, Korean modern poetry, children's verse, children's verse based on oral songs, the proletarian children's verse, juvenile literature, 『Bul Byul』, the proletarian literature.